
국 외 출 장 보 고 서

2019. 11



사 회 가 치 실

목 차

1. 출장목적	1
2. 출장일정 및 세부내용	1
3. 출장업무 주요내용	2
4. 시사점 및 출장 소감	6

1 출 장 목 적

- ☐ 글로벌 선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벤치마킹
- ☐ 기후변화 대응, ESG 정보보고 등 지속가능성 관련
글로벌 트렌드 학습
- ☐ 기업별 지속 가능경영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

2 출 장 일 정 및 세 부 내 용

- ☐ 출장기간 : 2019. 11. 2(토) ~ 11. 9(토) [6박 8일]
- ☐ 출 장 지 : 독일(프랑크푸르트,뉘른베르크,아우크스베르크,뮌헨)
- ☐ 출 장 자 : 사회가치실 실장 이호수
- ☐ 방문 기업 및 기관
 1. Adidas HQ
 2. 유럽중앙은행(Europenan Central Bank)
 3. Allianz
 4. 푸거라이(세계최초 복지시설)
 5. BMW Belt 및 자동차 박물관
- ☐ 참석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포스코, KT, 유한킴벌리 등

1. 방문 기업 및 기관의 벤치마킹 포인트

- ☐ 기업/기관의 Sustainability의 역사
- ☐ Sustainability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 최근의 중요한 Sustainability는 무엇인지?
 - 지속가능성 관련한 정책과 전략을 관리하는 내용
 -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에 대하여 소통하는지?
 -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nalysis Process)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 가치사슬상의 협력사 CSR 수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 ☐ 향후 Sustainability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인지?

2. 기업 및 기관별 방문 결과

- ☐ Adidas(독일 스포츠 의류 다국적 기업)

* 기업개요

- 독일(다국적기업) 스포츠 장비 업체
- 1924년 다슬러형제 운동화 공장설립
- 1949년 아이다스로 기업명 변경·공식설립
- 본사는 독일 바이에른주 헤르초게나 우라호
- 시가총액 70조 4,408억원('19년 8월 기준)
- 경영현황(2018년, 단위 억원)
 - 총매출액 29조 2,308, 영업이익 3조 1,585, 순이익 2조 2,704

- 총자산 20조 8,264, 총자본 8조 4,895
- 직원 57,016명(본사 6,000명 근무), 75개국 진출
- * 브리핑 : Adidas HQ Sustainability 담당 부사장
 -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모델(제품수준)에 통합
 - :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환경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 : 폐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제품제작 및 판매시작(철학적요소)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진척도를 수치로 보고
 - : 사무실, 공장에서 종이, 전등 사용량 줄이기 목표로 관리
 - WATER 2020년까지 29% 절약목표
 - 매 Km 뛰는 만큼 기금조성 좋은 일에 사용
 - 향후 지속가능성 위한 지속노력⇒장기적인 큰 성과 기대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 기업개요
 - 유럽연합(28개국)의 중앙은행(총재 마리오드라기)
 - 1998년 6월 1일 설립
 - 유로존 지역의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활동: 매월 정책이사회를 통해 유로존지역의 기준금리발표
 - 소재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이저거리 29
 - EU내 기후변화 관련 Greening Financial System Network참여
 - 전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들과 협조
- * 브리핑 : 홍보담당자,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 유로존의 경제정책 이행 및 정의
 -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안정 성장 지수 (물가상승률 2%)에 타겟을 두고 모든 통화정책을 진행중임
 - : 최근 물가상승률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는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 예) 해수면의 변화는 물류비를 상승시켜 물가를 상승)
- 환전관련 정책 조율
- 회원국의 외환보유고 조절 및 유지
- 지불능력 조정 관련 정책 시행
-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참여자

□ Fuggerei(사회복지마을)

- 세계최초의 복지시설 발상지
- 유럽 최고 재력가가 만든 사회복지시설(개인재단 소속)
- 1521년 푸거가(Fugger family)에 의해 설립, 현재까지 운영중
- 저소득층에게 아주 저렴하게 개인주택 제공하는 복지시설
- 연간 집세 0.88유로 + 매월 관리비 개인충당
- 대중에게 오픈된 사회복지시설
- 독일 바이에른주 아우크스부르크 위치
- 시설(8개 골목 7개의 대문)
 - 67개 건물에 142세대, 150명 거주
 - 넓이 15,000m²(약 4,500평)
 - 교회, 카페, 박물관, 식당 등 독립된 '도시안의 도시'

□ Allianz

* 기업개요

- 독일 보험금융 서비스업
- 1890년 2월 5일 설립(본사는 독일 뮌헨)
- 전 세계 70여개국, 14만 2,000명 직원(2018년)
- 고객은 7,800만명 이상
- 운용자산 €2조(2018년)

* 전 세계 보험회사 중 지속가능성을 주도하고 있음

* 브리핑 : 지속가능경영 담당자

- 독일의 보험, 금융서비스 기업,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생명보험, 화재, 산재, 기업, 개인보험, 자산관리서비스 운영
- ESG 투자, 기후변화 투자 내용 보고
 - : 자체 개발한 Index를 활용하여 내부적으로 전세계 기업분석
 - : 환경측면의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위 10%는 어떠한 재무적 성과가 있더라도 투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 현재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환경 이슈가 없는곳에 100%투자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 관련 데이터 보고
- 글로벌마케팅 전략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브랜드 홍보
 - ※ 예시) 장애인 올림픽 등에 대한 지원
- 배출가스문제 참여로 2050년까지 1.5℃ 원상복구 목표

-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기후변화”를 상정하고,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

1. Adidas HQ

- 근무 환경 속에서 탄소 줄이기를 KPI로 관리
: 종이, 전력 사용량 감소를 조직별 목표를 선정/달성독려
- 페플라스틱 재사용에 대한 다양한 기술 개발, 제품에 접목
향후 기술 향상을 통해 Adidas HQ 제품 플라스틱 소재는
페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Allianz

- 투자 시 대상 회사에 대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차원의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 자체 Index를 개발하여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
- 특히 E(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군에서 제외하고 있음
- ※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예로 “탄소배출” 등 환경에 이슈가
있는 철강을 제외 했다고 언급

- 지속가능보고서(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자사에 유리한 Index를 전략적으로 선택, DJSI(다우존스지속가능지수) 등
평가기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
→ 지속가능관련 대외 평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전문가 집단(컨설팅)과
협업하여 진행

※ Allianz에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공개함을 감안, 투자대상 기업분석 시 블룸버그 기업정보를 우선, 각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는 참고로 본다고 함.

- 함께 참여한 국내기업(kt, 유한킴벌리 등)의 경우
지속가능보고서를 평가데이터 공개 차원보다는 전년도 주요
사안 및 성과를 설명하는 홍보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황임
* 대외 평가는 전문기관을 통해 별도 대응중

- 금번 벤치마킹 연수 출장을 통하여, 기업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고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기업가치와 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경영활동인 지속가능경영의 진정한 의미를 새삼 느꼈으며,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대표적인 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이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발표한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인 ISO26000,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기관인 GRI의 가이드라인, 다우존스지수의 평가기준인 DJSI 등을 참고로하여,

공기업인 우리 공사는 매출이나 이익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을 추구하면서 더욱 큰 역할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일익을 담당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음.